

파리 컬렉션 변천에 관한 연구

이 난 희

서울 벤처 정보대학원 대학교 뷰티아트학과 전임강사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Paris Collection

Nan-Hee Rhee

Full time Lecturer, Dept. of Beauty Art, Seoul University of Venture & Information

(2006. 3. 10. 접수; 7. 7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historical change of Paris Collection in relation to the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Together with the various changes in society, creates fashio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Paris Collections is analyzed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until the present. The research method includes analysis entered on data from literature and magazines.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reached.

1. Paris Collection is composed of various situations such as the economic aspect, the changing society, the change of the costumes, the change of consumer's consciousness, etc.,

2. The position and role of Paris Collection will be changed in the future. But, there is no alternative. Paris Collection is the best system which we need in our society.

3. Since the level of the planning of the apparel industry becoming raised rapidly, Paris collection tend to avoid the traditional aspect.

4. In order to make good product, good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need. It must be considered to understand changes such as consumers lifestyles, social trend, etc.

Key Words: Paris collection(파리 컬렉션), Haute-couture(오뛰쿠튀르), Pret-a-porter(프레타 포르테), Mode(모드), Fashion of 21st century(21세기복식)

I. 서론

근년 의복에 대한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강조되어지는 경향이 보여 지고 있는데, 이것은 고도화된 사회의 전개 속에서 인간과 문화, 인간과 사회, 인간과 생활의 상호관련 속에서 복식을 검토해보려는 시대가 도래 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인간의 개별화욕구에 바탕을 둔, 자기표현의 수단으로서의 복식은 문화의 진전과 함께 매우 복잡하게 역할 분화가 되어졌다.

시대의 흐름과 함께 인간의 사회생활에도 발전과 진보가 있었으며 의생활에도 물론 이와 같은 시대의 추이와 함께 변화 해 왔다.

복식은 개인적인 착용의 문제임과 동시에 각

*Corresponding author ; Nan-Hee Rhee

Tel. +82-11-9942-0272, Fax. +82-2-450-3304

E-mail : rheenanhee@yahoo.co.kr

각의 시대와 사회의 산물이며,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시대와 사회를 특징짓는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복식이 파리를 무대로 해서 창조되고, 시대와 함께 변천하여 사회구조의 발달과 함께 그 참가 인구를 넓혀 가면서 전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오늘날의 놀랄만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긴 시간을 통해서 파리모드 즉, 이것을 대표하는 매체로서 파리 컬렉션이 전파 미디어를 통해서 모드(M)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리더로서의 권위를 갖고 그 사명을 다 해 왔다. 그리고 파리컬렉션의 힘은 모드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다양한 모드를 탄생시켜 세계각지에서 컬렉션이 탄생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컬렉션이 각각의 개성과 힘을 가지고 병존해 오면서 세계 패션의 흐름을 상호 보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그 예로서 밀라노 컬렉션은 1976년 이후 파리컬렉션의 1주일 전에 열리고 있으며, 1980년대 초부터는 런던 컬렉션이 개최되고 있다. 런던은 60년대 미니스커트의 탄생과 전통을 기초로 80년대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만큼 저력을 갖고 있지만, 경험부족으로 비즈니스로의 연결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은 파리에서 컬렉션을 열게 되었다. 그리고 뉴욕컬렉션은 1962년 미국 디자이너 협회(CFDA)가 발족됨으로서 컬렉션이 열리게 되었다. 여기에서 쇼는 비즈니스를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철저했다. 그것은 뉴욕패션의 특징인 실생활을 위한 의복에는 특별한 개성과 강한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그 외 서울컬렉션, 동경컬렉션 등의 컬렉션이 있지만, 오랜 전통과 권위, 다른 컬렉션에의 영향력, 컬렉션자체의 우위성을 갖고 있는 파리컬렉션의 변천을 더듬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의 서양복식을 생각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역사가 있으며, 그 시대의 복식의 원류를 프랑스의 모드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식의 역사를 검토 한다는 것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복식의 역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종래에는 의복의 연구동향이 의복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주로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것은 특히, 스타일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스타일의 역사와 흐름을 유능한 디자이너들이 주도한다고 인식했는데, 전통적으로 이러한 관점은 디자인의 미적특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스타일의 변화는 패션 리더나 무수의 디자이너가 행한다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복식의 다양화, 개성화 등의 경향은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가치관과 취향을 내포한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에 의해 복식이 변화해 가는 경향이 현저해 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종래의 접근방식에서 한가지의 관점을 더 추가하여 분석했는데, 그것은 의복의 사회적 차원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인 환경이나 문화적인 측면에도 비중을 두어 분석했으며, 패션리더로서의 전통을 이어온 파리컬렉션이 다른 컬렉션과는 다른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면서 그 고유성을 유지 해온 요인을 파리컬렉션의 변천과정을 통해 그 특질을 분석해 보고, 파리가 모드의 중심에 서있었던 배경, 원동력을 통해 21세기 복식 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그것은 어떤 한 시대의 의복이 수행하는 역할을 검토할 수 있고, 스타일의 변화, 의복의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마케팅, 그리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복식의 변화를 폭 넓게 탐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문헌과 잡지, 신문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파리 컬렉션의 역사를 오투쿠튀르(Haute Couture)가 성립하는 19세기 말부터 1990년대까지의 흐름을 20년 단위로 분석했으며, 2000년 이후의 파리컬렉션을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다른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과 관련시켜 21세기의 복식의 흐름을 전망 해 보았다.

단순히 의복의 유행, 스타일의 검토는 많은 서양복식사 저서, 선행연구인 南博(1991)²⁾, R. Turner, Wilcox(1958)³⁾, Phyllis G. Tortora & Keith Eubank(1999)⁴⁾들에 의해 분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파리컬렉션의 변화추이를 深井晃子(1993)⁵⁾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토대위에 파리컬렉션이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서양 복식사에서 보여 지는 의복의 변천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복식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었던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했다.

II. 파리 컬렉션의 역사적 배경 및 목적

파리 컬렉션의 역사를 서술하기 전에 우선, 파리 컬렉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파리에서 일정기간 열리는 디자이너들의 쇼의 집합체이다, 예를 들어 시즌에 열리는 쇼는 최소한 80회 이상이며, 이것을 단지 1주일이라는 기간동안 한층 집약적이면서 효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파리가 만들어낸 긴 역사 속에서 정착되어진 하나의 형태가 파리 컬렉션이다⁶⁾.

19세기 중반 경에 새로운 작품을 모델에게 입혀 고객들에게 보여준 것은 오뚜쿠튀르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워스(Charles. Frederic. Worth, 1825-1895)이다⁷⁾.

19세기 사회에서 모드는 전파력이 점차 넓혀지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파리가 이끌어 가는 미국이나 그 외 외국에서 오는 고객이나 바이어, 저널리스트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1910년대부터 메종이 외국에서부터 오는 바이어나 저널리스트의 편의를 위해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의 연 2회에 걸쳐 조직적으로 쇼를 기획해서 열었는데, 그것이 파리컬렉션을 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오뚜쿠튀르는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그 당시 파리 컬렉션은 모드를 좌우했으며, 그 취재는 신문, 잡지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이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저널리스트의 스케줄은 파리 컬렉션에 의해 움직이게 되었다.

거기에서 60년대부터 급속한 영향력을 갖게 된 프레타 포르테(Pret-a-Porter:기성복)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에 의해 필연적으로 생겨난 것이었다.

프레타 포르테에서는 새로운 젊은 디자이너들이 선보였으며, 오뚜쿠튀르의 디자이너들도 프레타 포르테를 만들기 시작함과 동시에 사람들의 의식에 큰 변화를 준 1968년의 <5월 혁명>이 프랑스에서 일어났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프레타 포르테 디자이너들이 각자의 쇼를 열어 자신의 컬렉션을 발표했지만, 점차적으로 전통 있는 오뚜쿠튀르를 모방해서 각자의 작품을 조직 속에 스며들게 하여 한데 모아 쇼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으로서 연 2회씩 오뚜쿠튀르보다 빨리 열었다.

이와 같은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에는 점진적으로 전 세계의 재능 있는 디자이너들이 참가하게 되었고, 거기에 발표되는 의복은 생활에 밀착한 착용감이 좋고 입기 편해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오뚜쿠튀르를 대신하여 유행을 선도하는 프레타 포르테의 컬렉션은 시대의 요구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파리 컬렉션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프레타 포르테의 컬렉션이 되었다. 파리 컬렉션은 대공황, 제1차, 2차 세계대전 등을 거치면서도 파리모드의 변천과 함께 발자취를 남기며 발전해 왔다. 그리고 파리 컬렉션은 프레타 포르테를 위한 기능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파리 컬렉션은 파리모드를 전파하고 확산하는 역할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17세기 이후의 모드는 파리라는 중심적 지위를 유지하는 결과를 낳았다⁸⁾.

그리고 파리 모드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식에 대한 시스템이 파리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이 시스템은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해 왔지만, 파리 컬렉션이 한 사회 속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는 기호로서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파리 컬렉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파리 컬렉션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매 시즌 세계인구의 극히 소수이다. 이것을 전 세계의 소비자에게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은 잡지, TV, 인터넷, 그리고 그 외의 미디어이다.

그러므로 파리 컬렉션 자체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 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통일된 모드라는 형태로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 속에는 디자이너들의 자기 작품에 대한 표현, 즉, 창조성이며 새로운 유행의 제안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회 속에 침투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수단이며, 더욱이 그것을 잘 활용하여 비즈니스로서 전개 해 간다.

파리 컬렉션을 그 역사로부터 살펴보면, 오뚜쿠튀르의 비즈니스 수단으로서 쇼가 열리기 시작했다. 최근 파리컬렉션 개최가 1개월 정도 빨라졌는데, 그 이유는 방송용 보다는 컬렉션의 비즈니스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III. 파리 컬렉션의 변천과정

1. 오뚜쿠튀르의 성립 (19세기말-1910년대)

모드의 원류를 루이 16세 시대부터 찾는다면, 당시 궁전 사교계의 지배자이며, 그 시대의 유행을 선도하는 왕비인 마리 앙뜨와네트(Marie Antoinette)는 현대 모드의 선구자로서 새로운 모드의 전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여기에서 모드의 흐름이 변화했으며, 그것이 계속해서 혁명기 의복의 출발점이 되었다⁹⁾.

또, 이 역사적인 모드 흐름의 변화의 배경에는 18세기 후반이래의 산업혁명의 진행, 또는 현재의 시민생활을 지배하는 프랑스 혁명(1789년)이라는 사회적 움직임이 있었다.

그것은 사회와 패션의 시스템을 근대화시켜

갔지만, 패션의 중심지로서의 절대적 지위를 견고히 하기위한 파리가 필요로 하는 19세기의 사회상황에 맞는 시스템이었다. 이것을 확립 시킨 사람이 영국인 프레드릭 워스(F. Worth)였다. 이 근대적인 시스템은 약 1세기에 걸쳐 구미 사회의 패션을 이끌어 가는 오뚜쿠튀르, 그리고 그 후의 명맥을 유지해온 프레타 포르테에 계승되어 온 프랑스 독자의 패션 조합이다. 이것은 작품에 이름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옷을 팔기위한 이미지 작전을 세워 계절에 따라 작품의 컬렉션을 전시하는 것에 착목했다. 이것이 현재의 오뚜쿠튀르 조합의 기초가 되었다. 여기에서, 파리에 오뚜쿠튀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2가지의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 워스의 재능이 적기에 파리와 결합했던 점과 리용의 건직물을 포함해서 고급스러운 의복 산업을 이끌어 갈수 있는 장인들의 존재가 파리에 있었던 것이 제2제정이라는 사회의 중심지였던 파리 오뚜쿠튀르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은 틀림없다¹⁰⁾.

제2제정기에는 산업혁명에 의한 여러 가지의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19세기사람 들은 경제적으로 윤택했다.

따라서 그들의 구매력은 증가했으며, 특히 의류품의 수요증대를 가져왔는데, 그 이유는 재봉틀의 실용화, 구입하기 쉬운 기성복의 판매, 백화점의 출현 등이었다.

둘째, 제2제정이라는 계급사회의 새로운 상류사회와 리더를 탄생시킨 이 시대에는 그 계급을 식별하기 위해 새로운 모드의 시스템인 오뚜쿠튀르를 필요로 했다. 그리고 오뚜쿠튀르는 그 후 약 1세기에 걸쳐 모드의 이미지를 우월적으로 지배 했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모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오뚜쿠튀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성기를 맞이했다.

2. 파리 컬렉션의 정착 (1920-1930년대)

이 시기는 모드의 중심에 파리 컬렉션이 정착하는 시기이다. 사회현상으로는 미국의 블루머(Amelia J. Bloomer, 1818-1894)와 같은 여성해방주의자에 흥미를 갖는 여성들이라도 코르셋으

로부터 해방하려는 생각은 드물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여성들이 스포츠를 하게 되었으며 자동차나 기차 등의 교통수단의 발달에 의해 여행, 스포츠웨어를 입게 되었다¹¹⁾<그림1>.



<그림1>
스포츠웨어(프랑스)
Gerda Buxbaum (1999).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Prestel,
p.34.

이와 같은 배경으로부터 여성복에 코르셋이 필요 없는 의복을 제안한 디자이너가 폴 포아레(Paul Poiret)이다. 포아레의 옷은 사회적 역할로부터 보면, 지금까지 남성의 권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옷으로서 예전의 옷과 큰 변화는 없었다.

여기에서 사회 환경을 크게 변화시킨 계기는 세계 제1차대전이었는 데, 무엇보다도 여성들은 남성이 전쟁터로 나갔기 때문에 여성들이 생활을 책임지게 되었으며, 지금까지는 남성들의 분야였던 일을 여성들이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20년대, 30년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켰다. 이것들의 영향으로부터 여성복은 변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20년대의 파리를 문화면과 관련시켜 생각해 보면, 파리는 유럽문화의 신사조(큐비즘, 미래주의)를 대표하는 곳이었다. 시, 소설, 연극, 댄스, 음악, 그리고 모드가 장르와 상관없이 전위적이었다. 더구나 그 당시 파리에서 열려진 세계장식 미술전은 후에 아르데코(Art Deco)라는 예술 양식을 탄생시켰다.

복식분야에도 아르데코의 영향으로 간결한 선과 상징적인 아르데코의 예술 양식이 복식 디자인에도 보였으며, 20년대 복식의 유행에 영향을 미쳤다¹²⁾.

이 시대에는 모드가 결정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재능이 많은 디자이너들이 활약했는데, 랑방(Jeanne Lanvin), 포아레(Poiret), 비오네(Madeleine Vionnet), 샤넬(Gabrielle Chanel) 등 이었다. 특히 샤넬은 나는 여성들이 생활하고 숨쉬고 편안하

게 느낄 수 있으며 더 젊어 보일 수 있는 패션을 만든다¹³⁾. 라고 했듯이 이 시대 여성들의 삶의 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¹⁴⁾<그림2>.



<그림2> 샤넬 실크 저지드레스
American Vogue, May 1918.

이상과 같이 20세기가 되면서 복식은 큰 변화를 보였는데, 파리에는 모드를 만들기 위한 복식 조합의 성립이 시급했다. 왜냐하면, 오투쿠튀르의 디자이너들과 그것을 경제적, 기술적으로 이끌어 갈 매개체가 필요했으며, 그와 동시에 메종이 차례로 등장하여 거기에서 만들어 지는 옷을 팔기위한 컬렉션이 필요했는데, 쇼라는 형식으로 저널리스트, 바이어, 그리고 구매력을 가진 고객을 위해 1920년대에 와서는 연중행사로서 정착하게 되었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여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으며, 이렇게 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다.

복식 산업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침체되었지만, 그 당시 유명한 디자이너들인 스키파렐리(Elsa Schiaparelli), 니나리치(Nina Ricci), 발렌시아(Cristobal Balenciaga)가 등의 활약으로 전쟁으로 인한 불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3. 파리 컬렉션의 전성기 (1940-1950년대)

파리모드는 전쟁으로 인해 심한 곤란을 겪게 되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의 점령기간(1940-44년)동안에는 파리는 외국과의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전과 같이 정상적인 모드 활동이 불가능 했다. 파리젠느들은 독일에 도전하는 보이기 위해 높은 티번을 유행시켰으며, 복장은 스커트

가 짧게 되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섬유와 의복 재료의 담당제가 실시되어 화려한 장식은 금지되었다.

전쟁 전 파리는 미국에 의지했지만, 전쟁에 의해 외국으로부터 바이어나 저널리스트의 참가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상황은 바뀌었으며, 미국과 이태리가 그때부터 모드에 다른 형태의 상황을 만들었다. 파리 오뫼쿠튀르계의 활동이 저조한 이 시기에 세계모드가 변화기 시작했다. 그 예로서 뉴욕 패션계의 독립성 고양,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기성복산업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더욱이 대중 모드 시대가 도래, 이것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모드의 구조와 그 속에 차지하는 파리 오뫼쿠튀르계의 새로운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거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진국들의 사회적 대중화와 대중으로서의 여성의 모드생활에의 참가, 그와 함께 프레타 포르테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들 수 있다.

세계의 모드는 1940년대에 또 한번 새롭게 변화 했으며, 전쟁 전과 같은 상황이 되기까지는 크리스찬 디올(Cristian Dior)의 뉴 룩(New Look, 1947)¹⁵⁾ <그림3>의 등장까지 지속되었으며, 이것을 계기로 세계 모드의 중심은 파리라고 재인식 되었다. 여기에서 뉴룩을 이해하기 위해서 파리 모드계를 둘러싼 당시의 정치, 사회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면, 1947년은 구주가 전후의 혼란으로 불안정한 사회였으며, 세계는 동서간의 <냉전>체제에 돌입하면서 3월에는 세계는 자유와 공산주의라는 양 진영으로 분리 되는 트루만(Harry Truman)독트린이 선언 되었다. 이것이 계속되어 구주는 빈사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경제 재건을 위해 미국은 원조 계획인 마셜 플랜(Marshall Plan, 1948)을 선언했다¹⁶⁾.

한편, 스탈린의 소련은 코뮌포름을 결성하기도 했으며, 그 당시 세계 각국은 식민지 해방과 독립운동이 한창이었다. 프랑스 국민의 생활은 궁핍했지만, 크리스찬 디올은 새로운 매종을 설치하여 거기서 뉴룩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뉴룩에 반발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것을 극복하여 파리는

국제적 모드계에 있어서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뉴룩이 <상류사회로부터 대중사회의 대중 여성들에게>라는 전쟁전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¹⁷⁾.

1950년대는 모드 사에 있어서 프랑스 문화가 만들어진 엘레강스의 전통이 최고조로 달해 모드를 예술의 한 장르로 인식해 예술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했다¹⁸⁾. 그리고 세계모드는 파리 오뫼쿠튀르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우선, 세계 제2차 대전 후 미국, 영국의 의복 산업은 한때 파리의 모드는 끝났다고 생각 했지만, 크리스찬 디올의 뉴룩의 등장으로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어버렸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의복 산업은 파리 오뫼쿠튀르가 갖고 있는 모드의 리더로서의 위대한 잠재력을 재인식 했으며, 그 지도성을 인정해 주는 편이 자국에 이익이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파리 모드가 세계모드를 지배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당시 파리 모드가 예술의 장르로 인정 되었으며, 근대적 발전의 시대를 배경으로 프랑스의 오뫼쿠튀르의 전통적인 디자이너들은 재단과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었으며, 예술이 번창한 파리의 특질과 잘 결합할 수 있었다. 이것은 모드의 비즈니스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매년 유행의 변화는 작위적인 면도 있었겠지만, 오뫼쿠튀르의 의복은 판매량이 늘었다.

둘째, 전 세계에 꿈을 심어주는 헐리우드 영화와 파리 모드가 결합한 것도 뉴룩발표 이후의 일이다. 지금까지도 반복해서 오뫼쿠튀르와의 관계가 여성 잡지의 기사가 되고 있는 오드리 헵번의 영화는 새로운 유행을 만들었으며, 모드의 흐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셋째, 매 시즌의 유행과 비즈니스의 방향은 발표 장소, 파리 컬렉션의 중요성을 높여 갔다.



<그림3> 크리스찬 디올의 뉴 룩 (1947년)
Gerda Buxbaum
(1999), p.62.

그때 파리 컬렉션의 발표는 메종의 살롱에서 열렸는데 새로운 작품은 모델이 입고 초대 되어진 고객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위스가 시도한 이후 오늘날 까지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아프리에라고 불려 지며 오래 전부터 계승되어져온 쿠티르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 집단과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는 관련 산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이것들을 기초로 하는 파리모드가 세계모드의 중심지로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시기의 유럽에는 미국의 마셜 플랜이 작용하기 시작했고, EC(1951년)가 결성되었으며, 오늘날의 정치적, 경제적 통합조직으로서 새로운 유럽이 점차로 그 면모를 과시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경제부흥과 기술 혁신에 의해 사회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4. 프레타 포르테를 위한 파리 컬렉션 (1960-1970년대)

복식사에 있어서 1960년대는 모드의 혁명, 젊은이들의 폭발, 또는 모드의 위기라고도 일컬어진다¹⁹⁾.

이 시기 파리 모드계와 세계 모드계는 변화를 가져왔다. 오투쿠튀르는 위스가 창설하고부터 100년의 역사를 갖고 세계적인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데 반해, 당시 약체화되어있던 프레타 포르테 기업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오투쿠튀르의 쿠티르에 대항하는 새로운 모드를 창조해서 모드계의 유망주로 대두되었으며, 1960년대 이래 오투쿠튀르의 컬렉션보다 먼저 컬렉션을 열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세계모드의 흐름은 변화했으며, 모드의 시스템의 분산으로 인해 복잡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서양 선진공업국들의 경제성장에 의해 계급이 없는 사회로의 움직임이 촉진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방 선진국들에게 전반적으로 보여 졌다. 이것이 1960년대의 모드의 흐름을 변화시켰으며, 모드의 자유화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세계 제2차 대전 후의 베이비붐 세대가 성장기에 도달했다. 이 새로운 세대는 한층 더 큰 규모로 1960년대 세계정세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이 세대는 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복식도 새로운 세대에 맞는 패션이 거리로부터 점차 제안되었다. 이 시대에 유행했던 복식은 이와 같은 젊은이들의 요구에 응한 파격적인 것이 보여 졌다.

매리 퀴트(Mary Quant)가 런던에서 미니스커트<그림4>를 만들어 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였다. 또한, 청바지가 지금까지는 노동자의 작업복이었지만, 제임스 딘이 출연한 영화의 영향으로 청바지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게 되었다. 청바지는 유럽을 통해 미국에 전해졌으며, 1950년대 미국에서 출현한 이래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의 일상복이 되었다. 여기에서 오투쿠튀르가 지배하던 프랑스에서는 미국등과 비교해서 기성복산업의 발달이 늦었지만, 이 시기 프레타 포르테가 대두하기 시작했다.

그와 같은 요인으로서 새로운 경제성장에 의해 출현한 대중소비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은 취향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기성복 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오투쿠튀르 만으로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 프레타 포르테의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유행시켰으며, 전후 기성복기업자들도 품질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일을 목표로 하면서 이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들도 처음에는 각각 쇼를 열었지만 점차로 오투쿠튀르를 모방해서 모든 기업이 합쳐서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을 발표 했다. 이렇게 해서 60년대 70년대 모드는 차차 오투쿠튀르로부터 프레타 포르테로 이동했다²⁰⁾.

1970년대 프랑스는 <5월 혁명,(1968년)>을 계기로 전통적인 기구, 정신적 구조가 변했으며, 새로운 가치관의 부상은 예전의 가치관과는 판이한 양상을 보였다.

모드에 있어서도 그 시기까지 중요시 하던 형식적인 것은 없어졌으며, 무엇에도 속박 되지



〈그림4〉 매리 킨트의 미니스커트. Gerda Buxbaum (1999), p.82

않으면서 모든 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요시 했다.

오뚜쿠튀르가 지향했던 완벽한 아름다움과는 전혀 다른 패치워크의 스커트, 지레 튜닉, 청바지 등이 히피 풍, 또는 한층 기묘한 스타일의 옷으로 착용되었다.

70년대 모드의 특징은 새로운 직선적인 재단, 그리고 무엇보다 긴장감 없는 헐렁한 옷이 선 보였다. 그것으로 인

해 정통의 오뚜쿠튀르의 가치는 크게 변하게 되었다.

한편, 신흥의 프레타 포르테로부터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차례로 등장했으며, 60년대 크게 발전한 프레타 포르테는 이때부터 연 2회 조직되어진 국제적인 패션정보의 시계열이 되었다. 이 패션정보의 시계열이 열리고부터 점차 그 중요성이 높아졌고, 규모도 커졌다. 70년대는 20,000인의 저널리스트, 바이어, 75년에는 80,000인이 파리 컬렉션이 열리는 장소에 입장했다. 이 중에서 80%가 해외로부터 온 입장객이었다. 파리가 국제적인 모드의 중심지로서 불려지는 것은 오뚜쿠튀르가 번성했던 시대였지만, 1970년대는 오뚜쿠튀르 대신에 프레타 포르테가 그 중요성을 높여갔다. 그와 함께, 기성복을 입는 사람들이 한층 더 다양한 것, 독자적인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프레타 포르테의 기업은 창조적인 것을 만들기 위한 디자이너를 필요로 했으며,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했다. 이 사람들은 60년대부터 사회의 변화로부터 생겨난 새로운 모드에 열망을 갖고 새로운 사회의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티스트였다. 이 아티스트들은 작품도 중요했지만, 이것들의 컬렉션을 효과적으로 기자나 바이어들에게 호소하는 일이 필요했다.

그 당시, 오뚜쿠튀르는 소멸하는 운명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

황 속에서 프레타 포르테 조합에 가입한 오뚜쿠튀르의 디자이너들은 차례로 작품을 발표하게 되었으며, 파리 컬렉션은 프레타 포르테를 위한 컬렉션이 되었다. 프레타 포르테는 70년대, 80년대에 크게 발전했으며, 쇼에 참가하는 디자이너의 수도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당시 파리 컬렉션은 유능한 디자이너를 탄생시켰으며, 규모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충실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일본 디자이너들이 서구의 긴 모드 역사와 전통의 엄격한 제약 속에서 등장했던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최근 서구인으로부터 높이 평가받기 시작했다²¹⁾.

5. 동서교류로의 파리 컬렉션 (1980-1990년대)

1980년대의 파리 컬렉션은 1973년 이래 완전히 순조로웠다고 말할 수 없다. 그 기본은 패션 비즈니스도 크게 변하면서 발전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디자이너 측의 파리 컬렉션에의 참가가 증가했다. 파리 컬렉션은 패션의 세계에서는 중요한 이벤트였으며, 전 세계로부터 오는 관계자는 많았다. 그와 함께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개최장소의 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다. 거기에서 1982년부터 국가적인 지원으로 루브르 궁전의 중앙 정원이 개최장소로서 사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한층 파리 컬렉션은 힘을 얻게 되었으며, 패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파리 컬렉션의 영향으로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전반까지는 세계각지의 모드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컬렉션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영향으로 세계 각지의 다양한 컬렉션이 파생했으며, 한때, 파리 컬렉션이 그 중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잃어간다는 위기감도 있었다. 그러나 80년대는 전통의 힘이 크게 재인식되는 때였는데, 파리를 모드의 중심지로서 육성하고 파리 컬렉션을 탄생시킨 오뚜쿠튀르가 다른 것과 차별화된 작품으로써 다시 한번 우위를 과시했다²²⁾.

파리 컬렉션은 현재 후발의 컬렉션과 비교해서, 우위성보다는 오랜 전통을 지닌 모드의 중심지적인 존재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파리 컬렉션이 80년대부터 일본의 패션 디자이너가 파리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70년대 이후 일본의 패션디자이너가 제안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그림5>.



<그림5> 겐조 (Kenzo, 1979)
Gerda Buxbaum (1999), p.113

첫째는 한 장의 천을 기본으로 해서 조직적인 옷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형개념이 있었다. 이 경우, 옷은 동서를 막론하고 창조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는 입체적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옷은 평면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은 형태를 우선하는 것은 소재라는 점이다.

셋째는 옷을 제압하는 것은 성적인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의미는 옷은 인간이 주체로서 인간 속에 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와 같은 개념은 1985년경부터 파리 컬렉션이 일본 파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거기에 보이는 것은 문화의 교류에 의한 현대적인 모드의 의미에 있어서 동서교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가 되면 파리모드는 새로운 역사적인 변혁기에 돌입했으며, 이와 같은 변동의 배경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정보혁명, 즉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의한 전 세계의 모드 시장이 하나의 범위에 둘러

싸였으며, 소위 국제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23).

둘째,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의 쿠투르의 메종은 전통적인 가족적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의 모드계는 거대한 금융자본이 모드계를 지배하는 요소로서 대두되었다.

이것들의 요인은 파리 모드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여기에서 파리 컬렉션의 내용을 보면, 컬렉션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헬무트 랭(Helmut Lang), 알렉산더 맥퀸 (Alexander McQueen) <그림6>, 질 샌더(Jil Sander)의 새로운 움직임이었다. 이들 옷의 특징은 지금까지 디자이너들이 몸의 형태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들은 몸의 형태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현대과학의 발달에 의한 인공적인 재료로서 변화시키려고 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다.



<그림6> 알렉산더 맥 퀸 (1996)
Charlotte Seeling (2000).
Fashion-The Century of the Designer. Konemann. Spain, p.479

한편, 질 샌더는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주자로서, 감각적인 디자인과 기술을 구사한 새로운 모드를 파리컬렉션에서 발표했다.

1990년대에 들어선 세계는 베를린의 장벽이 붕괴되었고, 동서 독일의 통일, 소련의 해체, EC (1995년)의 시장 통합 등 사회배경의 근본과 직접 관계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 컬렉션에서 보여졌다. 모드는 70년대 이래 하나의 명확한 표현

을 결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소비자의 동향도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멋있게 착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스타일이 선보였다. 그 예로서 거리패션의 영향으로 마크 제이콥스의 (Marc Jacobs)의 그런지룩(GrungeLook)의 탄생, 힙합(Hip-hop)등이며, 이후, 미니멀리즘(Minimalism)패션의 유행, 명품라벨의 노출과 대중화, 복고풍의 유행, 다양한 민속풍, 시스루룩(See-through look), 슬립드레스(Slip dress)<그

림7>은 1990년대 이후 오늘날 까지 크게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이다²⁴). 이와 같은 새로운 스타일은 시대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이와 같은 옷들의 유행을 보면, 우리들의 사회의 기호로서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림7> 헬무트 랭의 시스루 록(1996년S/S)과 슬립드레스 (1994년S/S)
Gerda Buxbaum (1999), p.157

IV. 파리컬렉션의 변천특질분석

1.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동추이와 복식의 측면

유행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복장에 얼마만큼 공통되는 가치관을 나타내는

가에 따라 성립한다. 거기에는 사회상황이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의한 가치관, 제품을 만드는 쪽의 마케팅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서술한 파리 컬렉션의 변천을 통해 그 특질을 검토 해보고 아울러 지금부터의 복식은 어떻게 변화되어가야 하며, 오늘날의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사회문화적환경의 변동과 복식과의 상호관계를 파리 컬렉션변천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들 수 있다.

첫째, 어떤 시대에 있어서도 시대의 변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같은 힘으로 복식도 변화한

다. 사람들의 감성이나 기호는 국내적 조건이나 국제적 환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에 의해서도 변화하는 경우도 많으며, 예술, 미디어에 의한 그 시대의 정신 등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복식의 흐름을 살펴보면, 각 시대의 복식은 그 시대마다의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 그 예로서, 1960년대부터 서방 선진국 공업국의 경제력은 급속히 성장했고, 서방 선진국을 일순간에 중상계급사회로 변화시켰다. 즉, 각국의 사회 정책이나 세제에 관련해서도 서방 선진국은 계급이 없는 사회로의 변화가 촉진되었다²⁵).

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기반에 의해 사람들의 생활양식은 변화했으며, 여가 생활을 영위하게 되면서 입기 쉬운 옷과 개성을 중시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것이 젊은이 패션의 대두, 프레타 포르테 상품을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이것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복식이며, 그것은 모드의 분열과 다양화에의 조류변화를 나타내는 현상중의 하나다²⁶). 또, 공업화 사회는 문명을 촉진시켜 사람들의 물질적인 상황을 윤택하게 했다. 그리고 인간은 마음의 풍요로움을 만족시키는 문화를 추구했으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것을 열망하게 되었다. 거기에서 대두 되는 것이 에콜로지(Ecology: 생태 환경보호) 사상이 사람들의 생활의식이나 행동, 가치관 등을 좌우하게 되었다. 그것의 영향으로 바디컨셔스 와 미니스타일이 주를 이루면서 자연지향적인 트렌드인 에콜로지풍이 색이나 소재 면에서 부각되어 더욱 자연스러움을 가미한 스타일이 대두 되었다²⁷).

1990년대부터 21세기에의 과정을 지구환경 문제로부터 생각해보면, 지구환경의 문제는 모든 인류의 급격한 과학과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지구환경의 변화는 문명의 진보의 암부를 끌어내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복식의 변화를 검토 해 본 결과, 사회 문화 환경의 변화가 소비구조의 변화를 낳고 더욱이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명확했

기 때문에 21세기의 복식은 경제 우선의 생각보다는 인간 환경을 지키려는 방향으로 이행해야 하며, 복식도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2.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복식의 측면

인간의 의식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유동적인 것이며, 사회상황의 변화는 인간의 의식을 변화시켜 그것이 복식에 나타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선 라이프스타일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는 태도, 가치의식, 의견, 관심 등과 그것에 이것들을 통해서 표출되는 행동과의 통합되어진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더욱 구체화된 개념으로서의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이 살아가기 위해 소비하는 시간과 사용 방법으로서 개인의 활동, 흥미, 의견 등에 구체화 되는 생활양식이다²⁸⁾.

이와 같은 라이프스타일은 변화와 사회를 배경으로 시간의 경과와 함께 생성되는 것이며, 그것은 무의식적인 현상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해 그것을 자신 속에서 표출하는 것은 극히 곤란한 것이다.

현대사회의 고도한 산업화와 도시화, 디지털 문화는 인간에 의한 생활의 의미 자체를 변화시켰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변화시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정착시켰고,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복식은 이와 같은 문화적 상징성에 적합한 물질적 대상으로서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어떤 시대의 생활양식이나 관습, 사회 속에 내재하는 가치 등을 반영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맥락으로부터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파리 컬렉션의 변천을 생각해보면, 사람들의 생활을 상대적으로 반영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복식이 변천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복식이 100년 전과 전혀 다른 형태를 보였던 것은 여성이 선거권, 참정권을 획득하고 세계 제1차 대전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복식은 점점 단순하면서 여성의 인체를 충분히 아름답게 보이는 디자인이 나타났다. 그것이 현

대 패션으로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보통신과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테크놀로지가 제시하는 미래적인 가상세계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가상세계를 통해 각자의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개인의 꿈은 과거 혹은 전통의 낭만적 기억, 어린 시절의 동화적 세계, 우주과학의 신비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꿈들은 테크놀로지가 지닌 실현가능성과 결합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상적인 것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평범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 재발견된 개성을 통해 동기를 부여 하고 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즐거움을 담아 낼 수 있는 개성적인 멋으로 적극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변화는 다음과 같은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해 내고 있다.

첫째, 새롭게 탄생되고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 둘째,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쾌적함을 추구. 셋째, 자신의 정체성을 위한 개개인의 맞춤소비 패턴. 넷째, 첨단화된 IT 기술의 혜택에서 본래의 인간성지향 등이다²⁹⁾. 그 예로서, 남녀의 성별이 없어진 패션이 출연하고 있고, 첨단 기술과 미래지향적인 요소의 테크노 풍의 하이테크 소재와 아방가르드한 스타일의 패션이 선보이고 있다<그림8>. 그것은 사람들의 개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심리와 라이프 스타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8> 아방가르드 디자인, 마르탱 마르지엘라 (Martin Margiela) 2000년F/W. 글기숙 외 공저 (2003), p.302

3. 파리컬렉션과 21세기 복식흐름의 전망

20세기 여성의 복식은 샤넬이 코르셋의 해방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21세기의 복식을 규정하는 것은 빠른 감도 있지만, 최근 복식

의 유형은 그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황 속에서 21세기의 복식경향을 2000년 이후의 파리 컬렉션의 변천을 토대로 예측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식연구가들은 여성 복식의 유행 경향도 과거 수년 사이에 사회의 점진적인 변화 속에서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지금과 같은 안정적인 경향을 보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³⁰⁾.

둘째, 우주시대, 정보화시대, 전자공학시대, 초 산업사회 등으로 표현되는 미래사회는 최첨단 기술 및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들은 생활의 풍요와 여가를 즐기며 자기본연의 모습을 찾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에 나타나는 패션은 글로벌한 문화적분위기와 뉴 미니멀리즘의 경계선상에서 페미닌 스타일, 자연복고주의, 이국적인 정서와 장식적이고 에스닉한 Cultural Mix 가 커리어 스타일에 제안되며, 전원적이고 로맨틱한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경향이 주류를 이루며 복식의 유행을 이끌 것으로 생각 된다.

셋째, 에콜로지(ecology) 사상이나 뉴 에이지 운동 등 지구적 시아의 새로운 조류가 다시 한번 현대를 재조명하면서 21세기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의식이 하이테크와 융합한 신 미래주의 복식이 대두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림9> 2006년 S/S 컬렉션. (섬유신문, 2005년 10월 17일)

이것들을 기반으로 한 복식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케주얼 감각이 부상하여, 입기 쉽고 여유가 있는 옷으로서 재미와 즐거움이 기술과 결합된 퍼블로지(Funology)철학에 의해 스트리트 패션과

사이버와 테크노 풍 들이 믹스 앤 매치되어 나타나고, 인공적인 멀티 브라이트 컬러와 싸이키델릭 한 패턴으로 표현되어 어느 때보다도 생동감 있고 에너지가 넘쳐나는 스타일이 지속되리라 생각한다<그림9>.

V. 결론

이상과 같이 파리컬렉션의 변천과정을 사회 문화적환경과 관련시켜 검토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해냈다.

첫째, 파리 컬렉션은 복식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상황 즉, 어려운 경제적 상황, 변화하려고 하는 사회와 함께 복식자체의 커다란 변화, 소비자들의 복식에 대한 의식변화 등에 의해 구성되어있다. 이것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파리 컬렉션은 다양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모드를 탄생시켰으며, 복식발달과 변화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재인식할 수 있었다. 물론, 이후부터의 많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최종적인 확신은 프랑스의 문화적 전통, 즉 600년 파리모드의 전통의 지속력은 다른 후발의 컬렉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21세에도 세계의 새로운 무대장치위에서 르네상스를 맞이하리라고 생각 되어진다. 이후 파리 컬렉션의 위치와 역할은 변화해 갈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생각되지만, 파리 컬렉션이야말로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고 있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회 환경의 변화와 소비자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맞는 의복에 대한 취향과 기호를 잘 파악하여 세계 패션의 선도적 역할과 패션산업의 비즈니스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된다.

셋째, 패션디자이너와 패션제조업체들은 오늘날 소비자와 함께 발전해야 하며, 소비자를 친밀하게 이해하여 패션의 조화를 창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소비자들의 의식변화의 특징은 새롭게 탄생되고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면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쾌적함을 추구한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위한 개인의 맞춤소비 패턴. 첨단화된 IT 기술의 혜택에서 본래의 인간성지향 등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보여 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내면과 본질에 충실한 보편적인 코드를 발견하여 첨단과학 기술에 재미와 즐거움을 접목시키는 옷이 21세기에는 요구된다.

넷째, 이와 같이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요구되며, 또, 사회 트렌드를 잘 파악해서 소비자의 의생활의 실태나 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상품기획의 시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1) Roselle, B. D., 西村愛子 역 (1995). *20世紀モード史*. 平凡社, p.16.
(모드가 유행을 지칭하게 된 것은 프랑스 인데, 시즌에 앞서 나타나는 기본형의 유행을 말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현재에도 파리의 오프쿠튀르와 그 시대를 이끌어 가는 창조자들의 개성적인 주장을 모드라 부르며, 일반적으로 양식을 나타냄).
- 2) 南 博 (1991). *パリモードの200年 I(5巻)*. 文化出版局.
- 3) Turner, R., Wilcox (1958). *The Mode in Costume*.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
- 4) Phyllis, G., Tortora & Eubank, K. (1999). *Survey of Historic Costume(3rd)*. Fairchild Publication: New York.
- 5) 深井晃子 (1993). *パリ・コレクション*. 講談社 現代新書.
- 6) Ibid., p.11.
- 7) 南 博 (1991). Op. cit., p.50.
- 8) 深井晃子 (1993). Op. cit., p.25.
- 9) Turner, R., Wilcox (1958). Op. cit., pp.307-319.
- 10) 深井晃子 (1993). Op. cit., pp.39-40.
- 11) Phyllis, G., Tortora & Eubank, K. (1999). Op. cit., pp.386-387.
- 12) Martin, R. (1998). *Cubism and Fashio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p.53.
- 13) Ewing, E. (1974). *History of Twentieth Century Fashion*. B. T. Batsford: London, p.100.
- 14) Phyllis, G., Tortora & Eubank, K. (1999). Op. cit., p.388.
- 15) Buxbaum, G. (1999).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Prestel: New York, pp.62-63.
- 16) Phyllis, G., Tortora & Eubank, K. (1999). Op. cit., p.424.
- 17) 南 博 (1990). *パリモードの200年II*. 文化出版局, p.16.
- 18) Crane, D., 서미석 역 (2004). *패션의 문화와 사회사*. 한길사, p.226.
- 19) 南 博 (1990). Op. cit., p.103.
- 20) 深井晃子 (1993). Op. cit., pp.155-156.
- 21) 深井晃子 (1994). *Japanese in Fashion*. 平凡社, p.242.
- 22) 深井晃子 (1993). Op. cit., p.162.
- 23) 南 博 (1990). Op. cit., p.215.
- 24) 금기숙외 공저 (2003). *현대패션100년*. 교문사. pp.299-301.
- 25) 南 博 (1990). Op. cit., p.104.
- 26) Ibid., p.105.
- 27) 이해영외 2인 공저 (2005). *21세기패션정보*. 일진사, p.43.
- 28) 田中千代 (1996). *新服飾事典*. 同文書院, p.1083.
- 29) www.sfi.co.kr. 삼성패션연구소 트렌드 정보.
- 30) 이난희 (1999). 21세기의 사회질서와 복장. *일*

본패션비즈니스학회 논문집 5, pp.91-92.

<그 외 참고 문헌>

- 31) 최선형 (2003). *21세기 패션마케팅*. 장지사.
- 32) 이은영 (2001). *패션마케팅*. 교학사.
- 33) Singer, M. (1968). *Cultur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Macmillan co.
- 34) Seeling, C. (2000). *Fashion-The Century of the Designer. 1900-1999*. Konemann. Spain.
- 35) 이난희 (1995). 어패럴 머천다이징과 정보에 관한 복장사회학적 고찰. 일본문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73-107.

(잡지)

- 36) ELLE (1940-1995).
- 37) VOGUE (미국, 프랑스). (2002-2005).